

성도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마음과 버려야 할 다섯 가지 마음

### ①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마음

- ㉠ 신심(信心) =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 ㉡ 대심(大心) =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크고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 ㉢ 동심(同心) =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느낌으로 같이 어깨동무하여 걸어주는 동무와 같은 마음입니다.
- ㉣ 겸심(謙心) =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탓이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회초리로 자기 발을 때릴 수 있는 스승과 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 ㉤ 칭심(稱心) ;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해 주는 마음입니다.  
칭찬은 작은 사람을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② 버려야 할 다섯 가지 마음

- ㉠ 의심(疑心) =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 소심(小心) = 속이 좁은 소인배 같은 작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인배와 같은 크고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 변심(變心) =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 교심(驕心) = 괜히 우쭐거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떠나고 잃게 됩니다.

㉔ 원심(怨心) =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켜야 할 마음은 참으로 지키기 힘들고, 버려야 할 마음은 참으로 버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지켜야 할 마음은 지키게 되고, 버려야 할 마음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Philippians 2장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을 품은 마음과 심장으로 채워놓으면 우리들도 아주 약간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